



# 예술 옷 입는 창고 '옛 영화 다시 한번'

## 담양 '남송예술창고'

갤러리·교육공간 등 활용  
국제예술창작촌 전초기지

담양은 폐창고시설로 방치됐던 남송창고에 예술을 입히는 작업이 한창이다.

5일 담양군과 담양문화재단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남송예술창고' 조성 현장을 찾았다. 70년대 만들어진 남송창고는 정부양곡을 보관하던 용도로 쓰였던 건물이다.

정면에서 바라보면 330㎡(약 100평) 규모의 창고 2동이 'ㄱ'자를 180도 돌려놓은 것처럼 맞닿아 있었다. 붉은벽돌로 지어진 두 창고는 한눈에 봐도 긴 시간 그 자리에 서있었던 건물임을 느낄 수 있었다. 흰 페인트 바탕에 검은색으로 큼직하게 쓰인 '南松倉庫'(남송창고)라는 글씨가 한눈에 들어왔다.

남송창고의 가장 큰 매력은 위치였다. 200~300여 년상의 팽나무 등이 심어져 있는 천연기념물 제366호 관방제림과 불과 10여m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 뒤로는 관방천과 죽녹원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고, 앞으로는 탁트인 시야 사이로 메타세쿼이아 길과 산이 펼쳐졌다.

'남송예술창고'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담양문화재단 국제예술창작촌 총괄기획 장현우씨는 "해마다 죽녹원은 입장객이 150만 명, 메타세쿼이아 길은 65만 명에 달한다"며 "이 곳은 두 지점을 이어주는 산책로 사이에 있어 문화예술시설이 조성되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송예술창고' 프로젝트 예산은 모두 12억 1200만 원이다. 남송창고 2동과 옛 죽제품 가공공장 1동 290㎡를 리모델링하고 건물 주변을 정비해 예술을 활용한 다목적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남송예술창고'는 현재 오는 5월 마무리를 목표로 대대적인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갔다. 외관은 옛 그대로의 모습을 살리고, 내부 공

간만을 일부 바꾼다는 계획이다. 창고 건물 1동은 현대미술 중심의 대형 미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갤러리로 활용하고, 다른 1동은 주민들의 문화예술 교육공간 및 문화카페로 사용될 예정이다. 옛 죽제품 가공공장은 관방제림의 역사를 담고, 보존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오는 4월부터는 프로그램이 본격 진행된다. '비움과 채움'을 주제로 남송창고 내부가 비워지는 과정을 주민과 함께 기록하고, '세시풍속마당'을 주제로 5월부터 옛 전통문화와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는 6월 말에는 갤러리 개관 전시로 '보고 싶고, 체험하는 현대미술'전을 열고,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기간 중국 북경 798에 있는 예술가 등을 초청해 한·중 교류 기획 전시도 열 계획이다.

장현우씨는 "'남송예술창고'는 앞으로 담양 국제예술창작촌 조성을 위한 전초기지 형식을 띠고 있다"며 "향후 담양군과 함께 대규모 예술창작 집단촌을 형성해 문화도시 광주와 연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촌 보이는 라디오와 나주 잠사공장(아래).

## '폐산업시설 문화자원화 사업'으로 활기

광주 소촌농공단지

담양 남송창고

나주 잠사공장

중국 북경798예술구는 군수공장들이 철수하면서 건물들이 방치된 삭막한 공간이었다. 북경798을 바꿔놓은 것은 예술의 힘이었다. 방치된 공간에 예술가들이 찾아들면서 오늘날 세계적인 예술지구로 거듭났다. 국내에서는 인천 아트플랫폼과 창동 예술촌 등이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폐산업시설 문화자원화 사업' 공모에서 광주 소촌농공단지, 담양 남송창고, 나주 옛 잠사공장 등 3곳이 선정됐다. 현재 이들 지역은 '문화·예술 꽃'을 피우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버려진 공장과 삭막한 공간에 활기가 돌고 있다.



## 광주 '소촌아트팩토리'

생태정원·라디오 방송  
문화로 힐링하는 공간

광주문화재단이 주도하고 있는 '소촌아트팩토리' 프로젝트는 삭막한 산업단지인 소촌농공단지에 위치한 관리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 문화예술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모두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단 관리사무소 대지 1만2525㎡에 아트힐링공간, 옥상힐링가든, 생태정원, 아트힐링스쿨 등을 만들 예정이다.

소촌아트팩토리는 소촌농공단지 근로자와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특히 근로자들의 노동 피로감 등을 치유함은 물론 공단환경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소촌아트팩토리는 미디어 관련 '소촌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예술치유를 위한 '천 번을 흔들려야 엄마가 된다, 레지던시' 'VRR실험연구\_Part1. 꿈을 만드는 공장' 등을 진행하고 있다.

'소촌 보이는 라디오'는 듣는 라디오뿐 아니라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화면까지 제공, 보는 즐거움까지 더한 프로그램이다. 광주의 정체성과 선비정신을 주제로 한 '선비열전', 광산구 마을 버스의 진풍경을 담은 '달리는 라디오' 등의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예술치유프로그램은 광산구 주민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소촌공단 입주업체인 (주)대우에이텍과 기타갑습반을 운영중에 있고, 30~40대 엄마들의 마음을 위로할 '천 번을 흔들려야 엄마가 된다'가 오는 14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담양군과 담양문화재단은 방치된 정부 양곡창고에 문화를 입힌 '남송예술창고'를 조성 중에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나주 '나비센터'

아카데미·마을 다큐 영화  
청년 축제·시니어 사랑방

나주는 예부터 비단으로 유명한 고장이었다. 1910년 나주에 일본인이 최초로 '나주 잠사주식회사'를 만들었고, 해방 이후인 1954년 김용두씨가 허물어져 버린 시설 위인 급성동에 '나주 잠사주식회사'를 설립했다. 한때 나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잠업 산업단지였지만 1973년 제1차 오일쇼크로 누에고치 생산량이 감소하고, 인력 유출 등으로 쇠퇴의 길을 걸었다.

예전의 영화를 잊고 쓸쓸한 모양만 유지하고 있는 나주 잠사공장은 문화시설로 조성된다. 나주시는 모두 4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잠사공장을 '나비센터'로 리모델링하고 있다. 건물 6개동(지상 1~4층, 건축면적 985㎡, 대지면적 4060㎡)에 달하는 규모다.

나주시는 시민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교육·창조를 통한 시민문화 커뮤니티 공간 조성,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 플랫폼을 조성해 나주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나비센터'는 현재 지역 사회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다. 앞으로 나주시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초청 강연인 '나주문화 아카데미', 지역 문화를 토대로 한 마을 다큐형태의 영상물을 제작하는 '마을 영화 만들기 및 상영회', 잠사공장의 기록 자료와 인근의 문화·건축·행정 자료 등을 기록하는 아카이빙,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니어 사랑방 등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미술 프로그램, 전시, 마을 청년 축제 등도 함께 구상하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대한인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증-2696호

50년 전통, 대를 잇는

#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인, 전 동신대학교수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KT ● 중앙초교

← 거림동 →

← 한화생명 →

← 구.한미쇼핑 →

← 동부소방서 →

● 중앙초교

● 관남로

● 주화동 당구

● 고개 주차장

(062) 227-7575